

한말의 斥邪衛正論議

李 澤 徽

(서울 敎育 大學)

〈目 次〉

I. 序

III. 結 語

II. 斥邪衛正論議의 再吟味

I. 序

1800년대 후반은 韓國近代史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로서 이 시기의 政治思想에 관한 연구는 近代 韓國政治思想史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870년대의 開國을 전후하여 제시된 斥邪衛正論議¹⁾ 바로 이 시기에 제시된 이념과 견해 중의 하나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朝鮮朝 性理學的 政治思想의 正統을 승계하고 있었던 것은 집권층이 아닌 士林들이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西歐諸國과 日本 등의 외세에 의하여 朝鮮朝 政治體制의 존립이 증대한 위협

1) 「斥邪衛正」을 「衛正斥邪」라고도 쓰는데 斥邪論議가 일어난 英正祖 때부터 斥邪論議를 비롯하여 이것을 政治思想의 차원에서 이론화 한 李愼老와 金平默, 柳重敎, 崔益鉉, 柳麟錫, 그리고 李晚孫 등의 萬人疏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斥邪衛正」으로 써왔으므로 역사적 용어에 새롭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써야 할 것 같다. 李維和, "斥邪衛正論의 批判的 檢討," 韓國史研究會刊, 『韓國史研究』, 18(1977. 10.), pp. 111~112.

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자 이들 士林들은 性理學的 政治理念의 기초 위에서 그와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朝鮮朝 政體²⁾를 보위하려는 斥邪衛正의 정치사상을 개진하고 이를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근대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斥邪論議나 斥邪運動이 서양을 禽獸로 인식하여 斥和를 주장하고 洋物을 奇技淫巧로 단정하여 배격한 사실은 아무리 그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심오하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守舊性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사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도처럼 밀려오는 외세의 도전으로부터 朝鮮朝 政治體制의 존립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박성에 비추어 볼 때 斥邪衛正의 정치사상이 한국근대정치사에 있어서 수행했던 적극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朝鮮後期 斥邪衛正論議에 대한 단순한 개념적 인식이나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斥邪衛正思想을 보는 새로운 視覺의 定立

앞에서 논의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斥邪衛正의 문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眼目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日人들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불리한 史料를 선별적으로 뽑아 썼는데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취급된 史實 중의 하나가 곧 朝鮮朝 性理學에 바탕을 둔 斥邪衛正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다.

2) 여기에서 「政體」란 單位政治共同體內에서 위계질서를 형성한 구성원 간의 非對等的인 상호작용과 그러한 관계에 지도(또는 명령, direction)가 개재되는 정치체계의 구조,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시(directions)가 결정·발표·집행되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그 구성원들로부터 正統性 感應을 환기시키는 활동·역할·수단이 내포되어 있는 정치체계의 구조가 곧 政體이다. Harry Eckstein, "Authority Patterns: A Structural Basis for Poli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 1973), pp. 1142~1161 參照. 또 Ted R. Gurr, "Persistence and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1800~1971,"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 1974), p. 1483 參照.

오히려 斥邪衛正의 思想과 그 運動은 朝鮮朝 末期,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변수의 작용으로 내부적 변신과 외부적 변화를 겪고 있을 때, 또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國家的 危機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굳건한 民族主義的 抵抗을 先驅的으로 보였던 思想이며 運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斥邪衛正運動은 朝鮮朝 5백년을 관통하는 性理學思想이 거둔 마지막 결실이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思想史的 理解없이 斥邪衛正을 논의할 수 없다. 분명히 斥邪衛正思想은 전통적인 性理學思想 그 자체이다. 그런데 朝鮮朝 儒敎思想이 守舊的이고 事大的이라면 그러한 사상과 朝鮮後期 國家的 危機에 직면하여 斥邪衛正運動이 적극적인 저항을 벌였다는 사실과는 논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朝鮮朝性理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와져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植民地的 史觀에서는 왜 性理學을 守舊的이고 事大的이라고 일방적으로만 규정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斥邪衛正思想에서 ‘옳음에 反對되는 邪’로 규정한 개념 속에 「日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朝鮮朝가 日本을 외부로부터의 적인 「邪」의 개념 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日本人들이 朝鮮을 침략하고 점령했을 때,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斥邪衛正의 정신을 傳承 시키고 그것을 韓國의 역사에 記述할 경우에는 韓國의 민족정신을 鼓舞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日人들은 斥邪衛正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만 역사를 편찬했던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지금도 斥邪衛正에 대해서 그것은 고루한 儒學者들이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日人들이 韓半島를 침략하여, 군대를 투입하고 武力으로 한일합방을 강행했을 때 이미 알고 있듯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抗日 義兵이 있어났는 바, 이러한 抗日義兵은 韓國의 근대적인 민족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조직적 이념 및 실천운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後半에서 20세기 初에 일어난 이러한 抗日義

兵의 선봉이었고 理論的 支柱가 된 사람들은 바로 대부분 斥邪衛正論者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韓國史나 近代韓國思想史에서 斥邪衛正의 문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³⁾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한국의 思想史나 역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비록 많이 보완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동안 발간된 朝鮮儒學史 등에서도 斥邪衛正 思想을 단 한줄로 대신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이념적으로, 특히 民族主義라는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이 斥邪衛正運動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學者에 따라서는 우리의 民族主義를 實學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實學을 性理學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마저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實學은 思想의 측면에서나 또는 運動의 측면에서나 「革命的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현대의 사회과학적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體制否定的」인 思想도 아니었다. 實學도 朝鮮朝 5백년을 관통한 正統的 性理學思想의 한 부분이었으며, 性理學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점진적인 社會改革 즉 일종의 진화론적인 개혁을 주장한 사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實學이 性理學과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性理學의 傳統이나 思想의 脈絡을 뒤엎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實學만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實學이 開化로 이어지고 開化에 뿌린 씨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만이 韓國民族主義의 근대적 연원이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더 연구·보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實學이라는 사상의 맥락도 크게 보면 性理學의 틀 속에서 性理學思想의 發展的 內容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兩者

3) 姜在彥, 「韓國近代史研究」(서울: 한울, 1982), p. 326을 참조.

는 공존하고 통합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開化와 관련된 이론이나 運動에 있어서 兩者는 갈등은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朝鮮朝末期에 가면 抵抗的 民族主義로 합일될 수 있었던 것이다.

性理學과 實學의 관계를 적극적 대립관계로 보려는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日人들이 조작해 놓은 식민지적 역사의식에 영향을 받은 논리가 남아있는 결과라 할 수도 있다. 물론 역사는 葛藤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調和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葛藤의 측면에서만 역사를 보는 것은 역사를 否定的으로 보는 눈이고, 調和의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역사를 肯定的으로 보는 눈이다. 그러나 역사는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헤겔의 논리를 빌자면, 역사는 觀念의 무한한 변증법적 進行過程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의 진행에서는 調和도 있고 葛藤도 있는 것이다. 調和와 統合의 논리에서 본다면 性理學과 實學은 그 흐름이나 내용에 있어서 결코 대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朝鮮朝末期에 오면 朝鮮의 正統的 思想의 大河의 흐름이 斥邪로서 집약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斥邪衛正運動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고립된 조그만 사건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II. 斥邪衛正論議의 再吟味

1. 斥邪論形成의 政治史的 背景

朝鮮은 1876년에 日本의 武力 앞에 굴복하여 굴욕적인 修好條約을 맺고 開國을 했다. 이 開國을 전후한 19세기 중엽 이후 朝鮮朝의 정치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아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된다. 對內的으로만 보더라도 5백 년의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온 弊習이나 정치체제의 內在的 矛盾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폐습이 심화되고 三政의 문란 등으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전국 각지에서 民亂이 일

어난다. 이와 같은 내부적 도전에 의해 5백여 년 동안 「天命德治」의 통치원리 위에서 운영되어 오던 朝鮮朝는 점차 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고 약화되어 갔다. 開港을 전후한 시기에는 朝鮮朝의 정치체제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朝鮮은 내부적 변모과정을 겪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도전을 받고 있었다. 즉, ‘西勢東漸’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西歐의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다.⁴⁾ 西歐에서는 이미 産業革命을 완성하고 近代的 民族國家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은 처음에는 자생적인 변모과정을 겪으면서 내재적 민주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었으나 나중에 이들 서구 국가들은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국가로 변모되어,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帝國主義的 侵略으로 급속하게 세계 전체에 파고 들었다.

그런 가운데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은 아시아로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때까지 儒敎政治文化圈을 형성하고 세계 정치와 거의 담을 쌓고 있던 東洋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렇게 하여 中國, 日本에 이어 韓半島까지 그들이 닿게 되었으니 이것이 西勢東漸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요구, 즉 通商이나 利權要求 등을 해오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러한 西勢東漸의 영향은 朝鮮社會에 미치어 그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으로 부각되었다. 설상가상으로 朝鮮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타율적으로 西勢와 교섭했던 淸나라와 日本이 西洋勢力의 영향을 받아 西勢에 가세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해왔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외부적 도전이 겹쳐 상당히

4) 이 시기에 대외관계의 차원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첫째 1860年代의 對西洋關係로서 1866년의 丙寅洋擾, 1871년의 辛未洋擾, 둘째 1870년대 對倭問題로서 1869~1876년에 걸친 書契問題, 1876년의 丙子修好條規, 셋째 1880년대초 淸과 倭를 통한 간접적인 西洋受容問題로서 1880년의 黃遵憲의 朝鮮策略問題, 同年의 統理機務衙門 設置問題 등을 들 수 있다. 崔昌圭, “韓國人的 政治意識,”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韓國文化研究所 刊, 「韓國文化研究叢書」, 6輯(1971), p. 103.

급속한 危機狀況이 조성되었던 것이 朝鮮後期,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 朝鮮朝政治體制가 처했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 도전에 대한 國內의 대응태도는 어찌 했는가. 우리의 對應形態는 크게 몇가지로 範疇化시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思想史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그 첫번째가 斥邪衛正思想이고 두번째는 東學思想이며, 세번째는 東道西器, 즉 한국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화합해 보려는 採西思想이며, 마지막 네번째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자는 開化思想이다.⁵⁾

이 중에서 특히 斥邪衛正論은, 朝鮮朝 5백 년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정통적인 性理學的의 문맥에서 朝鮮朝 政治體制의 保衛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실제로 외세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강하게 저항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反外勢運動에 영향을 준 것이 斥邪衛正의 思想과 運動이었다. 開化思想은 자기의 正體를 정립하기 이전에 근대화를 먼저 서둘렀던 誤謬를 범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⁶⁾ 또 한편으로 東學은 종교적인 민중동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상이며 運動이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었다.⁷⁾ 이에 반해 東道西器의 사상은 性理學的인 기초 위에서 아직 西洋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단계에서 採西, 즉 西洋의 文物을 받아들여자고 하는 소극적인 논리이었다.

-
- 5)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7), pp. 70~73. 또한 19세기 후반 朝鮮朝 政體가 당면한 위기적 상황전개에 대한 民族的 對應類型을 G. Henderson은 多衆動員(mass mobilization)이란 시각에서, 宗教的 次元의 動員(斥邪運動, 東學運動, 乙未義兵運動), 知識人의 動員(甲申政變, 獨立協會運動), 外勢依存的 動員(一進會)으로 범주화하는데, 이 견해에 있어서 外勢依存的 動員은 賣國의인 정치적 조작을 위한 他律的인 組織運動이었다는 점에서 民族的 對應類型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겠다. G.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63~71.
- 6) 裴成東, 「朝鮮末期의 政治體制」, 「韓國政治學會報」, 第十輯(1976), pp. 55~71. 그리고 文丞益, 「韓國近代政治思想의 論理的 性格」, 「韓國政治學會報」, 第十輯(1976), pp. 159~167 參照.
- 7) Henderson, 1968, 앞의 책, pp. 63~71.

그러나 斥邪衛正은 비록 그 기저에 守舊의이고 慕華의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斥邪衛正論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國家的 危機狀況에서 보여 준 철저한 自主와 排外의 定向을 부각시킨다면 韓國 近代民族主義의 주요한 한 원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초기의 斥邪衛正論이 慕華思想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斥邪衛正論에서 출발한 排外運動이 무엇보다도 抵抗的 民族主義運動의 성격을 강렬하게 내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저항적 민족주의의 연원을 찾는다면, 斥邪論이 아무리 慕華的 性格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斥邪衛正 思想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思潮를 이상과 같이 분류할 때 제각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歷史的 意義도 가지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며 운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斥邪衛正論도 비록 거기에 慕華思想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排外勢의 문제에 있어서 斥邪衛正論이 民族保衛를 위한 강한 抵抗性을 先導的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近代 韓國民族主義의 原型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斥邪衛正論의 集成 : 華西와 蘆沙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배경과 의의를 갖는 朝鮮朝 後期の 斥邪衛正論은 華西 李恒老(1792~1868)와 蘆沙 奇正鎮(1798~1876) 등에 의해 集大成되었다. 특히 斥邪衛正의 理論的인 論議를 시작하려면 19세기 중엽 斥邪衛正 理論의 기념비적인 支柱가 되었던 인물 華西 李恒老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鮮朝 思想의 큰 흐름은 開國 初期에 儒敎를 統治理念으로 정착시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儒敎를 統治理念으로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朝鮮朝 初期의 학자들은 이상적인 國家運營原理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제로 한번 실

현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靜菴 趙光祖이었다. 이들의 思想과 政策은 지나치게 理想主義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사상의 脈은 退溪·栗谷을 거쳐 朝鮮朝 後期까지 連綿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性理學思想의 大河의 흐름이 배경이 되어서 斥邪論이 형성되고 있으나, 學統의 관점에서는 華西의 경우는 平地突出과 같아서 어떤 스승에게서 직접적으로 학문을 전승받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栗谷과 尤菴을 私淑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華西는 자신의 學統을 栗谷과 尤菴에게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尤菴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華西는 19세기 중엽에 활동하면서 朝鮮의 性理學을 정비하는 데 진력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性理學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여 이를 외세에의 저항을 위한 實踐運動의 논리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華西 이외에도 蘆沙 奇正鎭⁸⁾과 같은 학자도 斥邪論을 펴고 있었다. 蘆沙는 당시 斥邪運動의 이론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 學統이 後代에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에 華西의 斥邪論은 後代의 門人들에 의해 사상적 측면이나 실천적 측면에서 日本이 朝鮮을 완전히 강점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華西는 18세기 末, 正祖 시대에 태어났고 丙寅洋擾가 일어난 2년 후인 1868년에 죽었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時代狀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正祖年間은 이미 韓半島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天主教 내지 西學에

8) 華西와 蘆沙는 거의 같은 시대에 斥邪論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政治思想의 배경이 되는 形而上學的 次元에서의 性理學理論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華西의 斥邪論이 主理二元論에 바탕하고 있는데 비하여 蘆沙의 그것은 唯理一元論에 입각하고 있다. 蘆沙의 著作 중에서 특히 「納涼私議」와 「狼筆」은 독자적으로 性理學의 理論體系를 전개한 秀作으로 평가된다.

9) 李晩采 編, 「關衛編」(京城: 關衛社, 1931), 卷二와 三을 參照(서울: 悅話堂, 1971, 影印)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시기이다. 이를 ‘關衛論’¹⁰⁾이라고 불렀다. 또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에는 中國과 日本을 개국시켰던 西洋列強의 진출시도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丙寅洋擾인데, 이와 같이 華西의 末年은 서양세력이 朝鮮과의 通交를 직접 요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華西를 중심으로 한 儒學者들은 비록 西歐 資本主義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西歐 資本主義의 도전을 국가적인 위기로 판단했던 것은 사실이다.¹¹⁾ 그들은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對應策을 講究했다. 즉, 우리의 전통적 이념이나 체계를 固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洋學과 洋物을 禁斷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斥洋’이야말로 당시 朝鮮朝의 정치체제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세력이 斥邪論者이었고, 그 先導者가 華西 李恒老였다고 할 수 있다.

華西는 1866년 丙寅洋擾 당시 프랑스軍이 江華島에 상륙했을 때 尨大한 내용의 上疏¹¹⁾를 올리고, 이 上疏에서 당시의 상황을 ‘危急存亡之秋’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오늘날 國論이 交와 戰으로 兩分되어 있다. 그런데 洋賊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나라 쪽 사람, 즉 國邊人의 주장이고, 洋賊과 和親해야 한다는 주장은 賊邊人의 주장이다. 前者를 따르면 朝鮮의 衣裳之舊를 保全할 수 있고, 後者를 따르면 인류가 禽獸의 지경으로 빠지고 만다. 조금이라도 근본을 잡는 신념, 즉 秉彝之心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¹²⁾라고 되어 있다. 이 上疏는 내용이 상당히 관념

10) 「華西集」, 卷三, 疏劄, 辭同義禁疏, “蓋洋夷之潛入我國廣傳邪學者 豈有他哉……”.

11) 이것은 大院君이 斥洋을 위하여 華西에게 隱逸로 同副承旨를 除授하고 불렀을 때 同職을 사양하며 上奏한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를 말한다. (1866年 陰 9月 13日) 李恒老, 「華西集」, 卷三, 疏劄.

12) “今國論兩說交戰 謂洋賊可攻者 國邊人之說也 謂洋賊可和者 賊邊人之說也 由此則邦內保衣裳之舊 由彼則人類陷禽獸之域 此則大分也 粗有秉彝之性

적이지만 斥邪論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華西에게 西洋文物, 西洋思想과 宗教는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華西의 사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華西 사상의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하는데 華西의 사상은 상당히 龐大한 體系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性理學에 있어서 宇宙萬物을 보는 기본적인 인식구조는 理氣論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理氣論을 바탕으로 人性論을 도출하는 것이 곧 ‘人心道心說’이다. 이 人心道心說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세계관이 華夷論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理氣의 理를 지향하지 않고 따라서 人心과 道心を 실천하지 않는 일체의 사물과 인간은 ‘斥邪’에서의 ‘邪’에 속한다. 따라서 理를 지향하는 道心이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고, 背理的인 人心, 즉 이 때의 人心은 人間이 克己하지 못하는 욕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邪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다.¹³⁾ 또 理를 지향하는 보편적 질서가 華의 논리이고 理를 따르지 않고 氣에 便乘하는 논리가 夷이다.

이와 같은 논리가 바로 斥邪衛正運動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性理學의 논리적 맥락에서 보면 華西에게는 전혀 異質的이고 열등하다고까지 판단되었던 西洋文物을 邪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고¹⁴⁾ 邪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邪가 勝하면 正을 保衛하는 사상이 나와야 한다. 이리하여 斥邪衛正의 사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華西의 斥邪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대내적인 矛盾보다 대외적

者皆可以知之 況以殿下之明聖 豈容在腹之入也 但恐宗社危急之禍 迫於呼吸 而計利 微幸之論 乘間抵隙 則未知聖明果能持之如一 剛決鎮壓 如孫討虜 所案之勇否也 此愚臣之所大懼也。”〔華西集〕, 卷三, 疏劄,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

13) 「華西集」, 卷二十一, 雜著, 人心道心說, “徇人心去 則爲小人爲亂爲亡 從道心去 則爲大人爲治爲存,” 同書, 卷四, 書, 答徐夏卿, “道心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者也”。

14) 「華西集」, 卷十, 書, 與朴善卿, 同書, 附錄, 卷七, 語錄, 金永祿錄。

인 挑戰에 민감하였으며 따라서 대외적인 도전을 우선 물리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華西는 우선 斥邪를 斥外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책을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記述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곧 「宋元華東史合編綱目」¹⁵⁾이라는 책으로써, 華西의 學統을 이어받은 重菴 金平默(1819~1891), 省齋 柳重教(1821~1893) 등이 著述하였다. 이들의 學統은 뒤에 義兵將 毅菴 柳麟錫(1842~1915)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책의 내용은 中國 元나라나 淸나라 같이 오랑캐가 지배했던 시대는 華가 아니라 夷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동아시아에서 華가 되는 것은 결국 朝鮮朝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시 中國을 지배하고 있던 淸나라까지 邪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明나라와의 관계나 慕華의 思想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뭏든 斥邪論者들은 모든 것을 二分法的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邪아니면 正만이 존재하며 또 正에 해당하는 문화나 체제는 朝鮮朝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邪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朝鮮朝 政治體制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華西의 인식은 主體的이고 民族主義的이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리하여 學者에 따라서는 그의 사상을 「閉鎖的」인 정치적 리얼리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⁶⁾ 그런데 여기서 特記할만한 것은 斥邪論者들이 朝鮮과 中國과의 관계를 인식하였던 시각인 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당시 斥邪論者들의 自主의 特性을 읽을 수 있다는

15)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은 朱子學의 政治이데올로기의 소산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정치체계의 自主性과 獨立性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高麗는 天子의 封을 받은 諸侯國과는 다르기 때문에 「列國」의 대열에 놓는다고 明記함으로써 전적으로 中國의 屬國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여기에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中國에 대한 朝鮮의 自主性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16) 이 문계에 관해서는 具範模, “開化期の 政治意識狀況,” 「韓國政治學會報」, 第三輯(1969)과, 韓祐勳,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歷史學會編, 「韓國史論文選集」(VI) 등을 참조.

점이다.¹⁷⁾ 실제로 이들은 淸을 中國文化的 正統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正統은 明에 와서 끊겼다고 간주했다. 그리고 明朝와 더불어 끊어진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통이 결국 朝鮮朝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淸도 邪의 개념에 포함시켰으며, 현실적으로는 淸과의 애매한 관계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長久한 歷史의 흐름으로 볼 때 淸과의 從屬關係를 청산하여 華의 정통인 朝鮮朝가 문화적으로 淸을 지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암시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華西의 정치사상은 비록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19세기 중엽 朝鮮朝가 처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은연중에 民族的 自尊을 함축하였고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일종의 民族主義의 反應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洋物禁斷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상세하게 건의하고 있는데,¹⁸⁾ 華西가 洋物禁斷의 정책을 건의했다는 사실은 그가 西歐 資本主義의 팽창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은연중에 日本 學者들의 영향을 받아 記述된 韓國史책에는 華西가 극도로 守舊的이고 封建的인 思想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西歐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華西의 文集과 그의 子孫이나 弟子들의 文集, 그리고 관련자료와 實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사상과 관계가 있는 항목을 抽出, 考證해 볼 때, 華西가 적어도 서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 동안 모두 잊혀져 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 학자들에게 原典 등과 같은 文獻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17) 「華西集」, 卷二十五, 雜著, 關衛錄辨, 用夏夷說, 「華書雅言」, 卷十, 尊攘第十九條.

18) 「華西集」, 卷三, 疏劄, 三疏와 辭同義禁疏, 同書, 附錄, 卷四, 語錄, 朴慶壽錄.

이 미약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 고유의 학문적 방법으로써 우리의 방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실력을 갖춘 젊은 學徒들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3. 斥邪衛正論議의 深化와 擴散 : 重菴

華西를 중심으로 한 斥邪論議는 思想史的으로 重菴 金平默에게 이어진다.¹⁹⁾ 重菴에 이르며 華西가 정립시켰던 斥邪論이 뿌리를 내려 확산되기 시작한다. 重菴이 살았던 年代는 1819년에서 1891년이 정확하다.²⁰⁾ 日本人 學者들은 重菴의 논리를 흔히 생각하듯 保守·復古의 이며 封建的理論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重菴의 사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斥邪論의 骨子는 內修外攘, 즉 斥邪의 방법은 우선 內修부터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곧 내재적인 체제의 矛盾부터 개혁해야 外的 挑戰도 물리칠 수 있다는 論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治道私議’²¹⁾로 집약되는데 重菴이 제안한 정책은 진보적일 뿐만 아니라 과격하기조차 하다.

重菴이 열 다섯 개 항목에 걸쳐 제안한 내용은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우선 社會·經濟的 改革을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土地所

19) 「重菴集」, 卷五, 疏, 代京畿江原兩道儒生 論洋俊情迹仍請絕和疏 또 拙稿, “重菴政治思想論攷,” 「서울教育大學論文集」, 第10輯(1976), p. 153 參照.

20) 重菴 金平默의 出生 및 死亡 年代에 관하여 學者들의 研究業績이나 記錄이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重菴의 後孫들에 의해 편찬된 「重菴先生文集」(서울: 宇鍾社, 1975), 下卷 年譜에는 1819(己卯)~1891(辛卯)年으로 기록되어 있고 重菴의 嫡傳이며 同門인 省齊 柳重敎의 「省齊集」 年譜와 省齊門人이며 義兵將인 毅菴 柳麟錫의 「毅菴集」 年譜에도 같은 年代로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9~1891年을 그의 生存年代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治道私議」는 重菴이 당시의 國內外問題에 관하여 關東의 來客과 問答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政策代案提示의 性格을 갖는 重菴政治思想의 實踐志向的 側面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重菴集」, 卷三十五, 雜著, 治道私議, 拙稿, 1976, 앞의 글, pp. 154~161 參照.

有制度의 개혁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로서는 실로 진보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여기서 일종의 耕者有田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히 앞선 논리로서 구체적인 土地의 면적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은 行政改革, 즉 官吏의 부패를 剔扶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朝鮮朝 5백년 동안 下級官吏에게는 祿이 없었는바, 重菴은 祿을 주지 않는 제도 자체가 곧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이들이 祿을 받지 못하니 苛斂誅求로 살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일정한 祿을 주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것이 行政改革을 위한 일차적인 급선무라고 생각되었다. 세 번째는 政治改革을 주장한다. 물론 그의 논리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는 전혀 아니었으며 단지 정치적으로 누적된 몇가지 矛盾을 지극히 진보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內修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힘이 축적되었을 때 外攘을 해야 하는데 그의 스승 華西가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했던²²⁾ 것과는 달리, 重菴은 西洋의 武力을 의식한 방법을 제시했으니 ‘養士詰戎’²³⁾ 이 그것이다. 여기서 士는 군대를 뜻하고 戎은 武器를 뜻한다. 重菴은 이와같이 군대를 양성하고 武器를 비축하자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단히 적극적인 國防策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守舊的이고 封建的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斥邪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상은 상당히 조직적이어서 오늘날의 향토예비군과 비슷한 農兵制度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모든 財政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鄉里마다 農兵을 두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屯田을 주고 평상시에는 이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有事時에는 군대로 출정시킨다는 것인데 重菴은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22) 朴忠錫·柳根鎬, 「朝鮮朝의 政治思想」(서울: 平和出版社, 1980), p. 184.

23) 「重菴集」, 卷三十五, 雜著, 治道私議, 第十四策, 養士詰戎.

내용까지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內修外攘策이 自強我事의 첩경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인데 이 自強我事의 이념이야말로 重菴의 斥邪論의 방법론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內更張 外防禦를 역설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자는 것이 重菴의 논리였던 것이다.

重菴의 이론이 華西의 이론과 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重菴의 著作에는 日本이 등장한다는 점이다.²⁴⁾ 이는 華西가 日本 勢力이 우리나라에 접근해 오기 이전의 인물이었는데 반해 重菴은 日本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그 日本의 武力 앞에 江華島條約이 맺어지는 것을 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重菴의 邪의 개념 속에는 西洋과 淸 외에 日本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斥邪論의 論旨는 상당히 넓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870년 후반부터 日本이 구체적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하자 重菴을 중심으로 한 斥邪論議는 日本을 물리치자는 斥倭論으로 집약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이미 서양세력이 후퇴하고 日本 勢力이 우세한 단계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의 강압적인 修好條約締結 요구에 대하여 朝鮮朝政府는 이를 받아들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儒林은 빗발치듯 斥和 疏를 올렸다. 이와같은 上疏는 開化派를 비롯한 반대세력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분개한 重菴이 同門修學한 勉菴 崔益鉉에게 上疏를 올릴 것을 激勵하였다. 崔益鉉이 重菴의 激勵書札을 받고 당시 斥邪派에 속한 儒林 50명과 連署하여 上疏를 올린 것이 유명한「持斧上疏」이다.²⁵⁾

重菴과 勉菴은 華西 李恒老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를 스승으로 한 同門이었으며, 또 華西의 學統을 이어 받아 重菴은 이론적인 면에서,

24) 「重菴集」, 卷五, 疏, 代京畿江原儒生論洋倭情迹仍請絶和疏.

25) 「勉菴集」, 卷三, 疏, 持斧伏闕斥和議疏. 이 疏는 重菴의 勸告로 이루어졌다. (「重菴集」, 卷二十二, 書, 與崔贊謙, 丙子正月十一日 參照.)

그리고 勉菴은 행동적인 면에서 斥邪思想을 확산·발전시켰다. 즉 思想史的인 學統은 重菴에게 전승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華西가 타계한 이후에는 勉菴은 중대사에 관해 重菴에게 이론적인 의논을 해서 重菴은 勉菴의 스승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다. 「持斧上疏」는 이 두 사람의 協力關係에 의해 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로 당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으며, 朝鮮朝 末期의 정치적 개혁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882년에는 嶺南 儒生 李晩孫이 「萬人疏」를 올렸는데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한 사람도 重菴이었다.²⁶⁾ 이에 이어서 江原道 儒生 洪在鶴이 上疏를 올릴 때에는 上疏文 末尾에 重菴 자신의 이름까지 써 주기도 하였다.²⁷⁾ 洪在鶴의 上疏는 대단히 격렬한 내용으로서 日本에게 開國하는 것을 격렬하게 비판한 이 斥倭의 上疏는 당시의 여러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開化派에 의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重菴이 귀양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가 1882년이었으니 그 年譜에 의하면 重菴은 1883년에 귀양에서 풀려나 1891년 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朝鮮後期 斥邪衛正思想 또는 그 운동은 ‘內修’의 측면에서 꼭 진보적인 이론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重菴에 이르러서는 무조건 斥邪·斥倭를 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外攘의 측면에서도 「斥洋大義」라든가 「絶和疏」 또는 「禦洋論」과 같은 여러가지 문헌을 통하여 추론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해 왔던 것 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守舊性만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당시 국제정치의 急轉直下的 變化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예로 重菴의 이론적인 영향을 받은 後代의 儒林들이 1800年代 末期나 1900年代 初期에 와서 오

26) 「重菴集」, 年譜 參照.

27) 「重菴集」, 卷五, 疏, 江原道儒疏尾附.

히려 〈東洋三國平和論〉을 주장했던 것을 들 수 있다.²⁸⁾ 이들에게서는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韓國, 中國, 日本이 국제적 협조체제, 즉 현대적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소위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서양에 의해 침략당하게 된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혀 간과해 버리고 있는 것은 심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 重菴의 논리가 반드시 守舊의이고 閉鎖的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斥邪衛正思想의 기초가 보수적 성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朝鮮朝 政治體制의 存立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殺身成仁의 각오로 분연히 분기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계속했고 그 脈이 日本에 의한 식민지 지배 이후 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華西와 重菴을 頂點으로 하는 斥邪의 사상이 韓國 近代政治思想史에 있어서 抵抗的 民族主義 理念의 한 淵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Ⅲ. 結 語

本 研究는 朝鮮朝 政治體制의 정통적 이데올로기로서 일관성 있게 기능해 온 性理學的 政治思想의 한 脈을 잇는 斥邪衛正論議가 19세기 중엽 이후, 대내외적 변화와 도전에 의해 조성된 격동기에 어떻게 형성되고 기능했는지를 재음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韓國 近代政治思想史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植民地的 史觀의 폐해를 지적하여 올바른 政治史의 視角을 정립 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斥邪衛正論議의 형성배경과 그 일반적 특성, 그리고 華西 李恒老, 重菴 金平默 등 대표적인 斥邪衛正 思想家들의

28) 拙稿, “朝鮮朝政治思想의 一研究,” 「서울教育大學論文集」, 第16集 (1983), p. 24.

정치사상과 실천운동을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斥邪衛正 思想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비가 안와 눈에 물이 없다고 저수지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독을 터 놓고 물을 받아들이는 수는 없는 일이다. 독을 터놓는다면 필요한 量의 물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독은 무너지고 물은 건잡을 수 없이 밀려와 급기야 洪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처럼 外勢에의 門戶開放에 있어서도 독을 터놓는 愚를 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로 斥邪衛正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開化派의 논리나 斥邪의 논리가 모두 각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開化」를 西洋의 文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斥邪」의 논리도 西洋文物의 流入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려는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독의 물을 아주 막아버리면 논이 말라버리니까 독을 터놓되 水門을 만들어 水量을 조절 하듯이 우리에게도 水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斥邪論議가 끝까지 外세와의 단절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閉鎖的 斥和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堤坊에 水門을 만들어 필요한 水量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듯이 우선 國力을 배양하여 外세의 도전에 自力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志向을 추구했던 것이며 이러한 政策志向을 斥邪論에서는 「自強我事」의 개념으로 천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斥邪論議 中에 後期에 와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처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보통 民族主義를 논하는 경우 韓國近代民族主義의 연원을 開化思想 中心으로 찾는 경향이 있지만 그 思想史的 淵源은 분명히 斥邪衛正思想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